

광주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청년 디지털 닥터단' 창단기로 광주대생 20팀 꾸려 조력자 참여

광주대학교 학생들이 디지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다.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캠퍼스 행정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과 MOU를 맺고, 광주대 재학생이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청년 디지털 닥터단'을 창단하기로 했다.

'청년 디지털 닥터단'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도와 SNS를 통한 고객 디지털 자산화, 디지털 커머스 입점, 입점 후 브랜드 마케팅, QR 주문 및 공공배달앱 입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은 소기업의 디지털 경영 활동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얻고, 소상공인은 혼자 하기 힘든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재단은 광주대학교 '청년 디지털 닥터단' 20개의 팀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하며,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광주대학교는 최근 캠퍼스 행정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청년 디지털 닥터단'을 창단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돕기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활동 기간 종료 후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팀에 대해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중년 디지털 닥터단'도 창단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의 중간 매개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창출 광주형 디지털 뉴딜 플랜을 실행한다는 복안이다.

광주대 김동진 총장은 "광주대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키워드로 학생들에게 공부머리 뿐만 아니라 일머리도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최근 일자리 스테이션 사업을 비롯해 학교 자체적으로 기업가정신 대학을 설립했다"면서 "학생들이 꼭 취업, 창업이 아니라 창직이라는 키워드를 가슴에 품도록 소개하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시도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는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디지털 닥터단은 조력이 필요

한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전환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산지소'의 한 축인 지역의 상품을 지능적(디지털)으로 소비하지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지구적으로, 지능적(디지털)으로 소비하지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찾아가는 부모교육·상담 광주여대 학생상담센터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학생상담센터는 최근 지역사회 연계 찾아가는 상담소 '부모교육 및 상담' (1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사회 연계 찾아가는 상담소 '부모교육 및 상담'은 전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지역 부모와 양육자들을 만나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교육했다. 양육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고충에 대해 상담도 했다.

찾아가는 상담소에 참여한 부모는 "부모 양육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말했다.

광주여대 학생상담센터 광경화 센터장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행복감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동강대에서 디지털디자인 전문가의 꿈 키워요"

일학습병행 디자인 과정 개설 전자공고 대상 '원데이 스쿨' 미디어 스트리밍 체험 등 호응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전국 최초로 개설된 고속원 일학습병행(P-TECH) 훈련 과정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디지털콘텐츠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동강대 일학습병행사업단(단장 전영남)은 최근 전자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일학습병행 원데이 스쿨'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동강대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지역 특성학교 학생들에게 국내 유일의 디자인 계열 고속원 일학습병행과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인프라 체험을 통해 디지털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마련했다.

동강대는 이날 원데이 스쿨에 참여한 전자공고 학생들에게 디자인 전공 특강을 비롯해 디지털미디어 체험, 참여 기업 소개, 포트폴리오 면접 취업 역량 강화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K-콘텐츠 특강과 미디어 스트리밍 체험, 인터랙티브(interactive) 영상제작 실습 등은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강대는 지난해 고속원 일학습병행 과정으로는 국내 최초로 디자인 분야 승인받았다.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를 신설해 모체학과인 미디어콘텐츠과의 영상제작 인프라를 기반으로 웹·앱 UX/UI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제이투모로우원, ㈜오베네프, ㈜리오통상, 아트트리아카데미, ㈜광고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P-TECH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서홍석 교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강대에 개설된 P-TECH 디자인 과정을 통해 특성학교 학생들이 학위 취득과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 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사업은 고교 때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취업한 도제학교 졸업생들이 기업에 근무하며 전문대학에서 2년간 이론을 공부하고 실무 경력을 쌓도록 지원한다. 2년간 등록금 전액 무료의 혜택이 주어진다.

동강대는 지난 2019년 호남지역 사립 전문대학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P-Tech' 사업에 선정됐다. 2025학년도에는 기계계열의 스마트팩토리 기계생산관리과(20명), 식품계열의 식품 품질관리과(25명), 디자인계열의 디지털콘텐츠 디자인과(20명) 등 3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다문화가정·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광주시교육청-광산구 특강·상담... 특별전형 안내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광산구는 최근 광산구 야호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이주배경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특강과 1대 1 상담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특강과 상담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배경 중·고등학생의 진로진학 설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통역사를 배치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지원했다.

특강은 다문화, 이주배경 학생들의 대입 전략을 연구해 온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서점권 교사(설월여고)가 강사로 나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고른기회전형, 다문화전형 등 특별전형을 안내했다.

또 빛고을 꿈트리 진로진학 상담교사 중 특별전형 담당 교사 10명과 시교육청 대입지원관을 중심으로 1대 1 진학 상담을 진행했다. 진학상담은 고입, 대입 준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 학생의 현실적인 진로진학 준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학부모 고민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시교육청은 향후 수요조사 및 만족도를 분석해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및 이주배경 학생·학부모



를 위한 찾아가는 진학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강과 상담에 참여한 김보민(상무고 2학년) 학생은 "중국어 관련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막막했다"며 "진로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산구 교육도서관과 이상훈 팀장은 "광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많은 데 비해 진로·진학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함께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학특강과 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학 지원을 통해 어느 명도 소외되지 않는 광주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